

근·현대 역사 담긴 '전주 빛나는 길'

시, 25·26일 하루 4차례씩 프로그램 운영... 구도심 웨딩거리 등 걸으며 길에 담긴 이야기 공유

서문교회와 옛 미원탑, 이거두리 이야기 등 전주시 미래유산과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도시의 역사와 시민들의 추억을 되짚어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시민·관광객과 함께 구도심 웨딩거리와 차이나거리 일대를 함께 걸으며 길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전주, 빛나는 길'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웨딩거리와 차이나거리는 과거 전주부성 서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녔던 길로, 옛 전북도청과 옛 전주시청 등 공공서와 금은방·시계점 등 각종 상점이 모여 있어 '전북의 명동'이라 불렀던 곳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기업은행 앞 전주시 도로인포에서 출발해 서문교회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구 전주 시청과 미원탑 △중앙동 거리 이야기 △박다육과 중국인 포목상점 등 차이나거리 △전주 3·1운동 △이거두리 이야기 등 전주의 근·현대 이야기를



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시민·관광객과 함께 구도심 웨딩거리와 차이나거리 일대를 함께 걸으며 길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전주, 빛나는 길'을 운영한다. (사진은 미원탑터 모습)

간접 경험하게 된다.

특히 시계수리공과 양장점 종업원, 화교학교 선생님, 꽃거리 등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실감나는 전주의 옛 이야기를 전달하고, 참가자의 흥미를 유발

하기 위한 퀴즈나 게임 이벤트도 펼쳐진다.

시는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10시와 10시 30분, 오후 2시와 2시 30분으로 나눠 하루 4차례씩 '전주, 빛

나는 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네이버 쇼핑에서 '전주 빛나는 길'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전예약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비는 1만 원으로, 납부한 참가비는 전주 웨딩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웨딩거리 내 상점 12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가 이용쿠폰(1만 원)으로 지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문화재야행'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전주, 빛나는 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전주, 빛나는 길'은 거리에 담긴 잊혀져가는 전주의 근·현대 모습을 시민·관광객과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하반기에는 전주 동문거리 등 구도심 문화콘텐츠를 확장하여 거리를 활성화하고 역사문화 관광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은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무보좌관에 한민희 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을, 비서실장에는 이경철 전주시 북성협회를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주요 정무직 내정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정무보좌관 한민희 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비서실장 이경철 전주시 북성협회장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8기 시작을 함께할 주요 정무직을 내정·발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은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무보좌관에 한민희 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을, 비서실장에는 이경철 전주시 북성협회 회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한민희 정무보좌관 내정자의 경우 전북도에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경철 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6·1 지방선거 초기부터 호흡을 함께해 저의 전주시정에 대한 철학과 정책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며,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건설 및 건축을 포함한 경제 관련 부서의 규모를 확대하고, 명칭을 포함한 조직 편제도 중앙 부처, 전북도와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옥마을을 관련해서는 "규제를 줄여야 오히려 발전할 수 있으며, 한옥마을이 전주관광의 전부는 아니다"라면서, 한옥마을을 관련 부서 축소 뜻을 내비쳤다.

또 건설·건축과 관련해 "그동안 전주시는 5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매년 큰 건 몇 개는 공익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50% 정도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을 제시했다.

우 당선인은 "지난 선거에서 전주 시민은 위대한 선택을 했다"면서 "전주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할 정도로 전주를 발전시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발전·시민 복리 증진 최선 다짐

제12대 전주시의회, 당선자 상견례·의정활동 교육 진행



전주시의회는 20일 당선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선 17명을 포함한 35명의 상견례를 가졌다.

제12대 전주시의회가 개원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의회(의장 김남규)는 20일 당선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선 17명을 포함한 35명의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견례는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에 이어 당선 의원 간 인사를 나누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12대 의회에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의회는 상견례 이후 당선인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1박2일 일정의 교육인 의정활동 아카데미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완주 상관리포에서 열리는 교육에서 의원이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실무 기법들을 학습하게 된다.

김남규 의장은 "의정활동 아카데미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12대 전주시의회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초선 의원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전주시, 총 277억원 부과

전주시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77억 원(19만8620건)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위탁, ARS(1588-23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 편의의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술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개관 20주년 축제 한마당

공연·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열려

전주시 술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센터장 김정현)가 지난 18일 개관 20주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축제 한마당을 통해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먹거리 체험(와플, 아이스크림, 팝콘, 캐러터솜사탕, 음료) △캐리커처 △버블 체험 △물총놀이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밴드, 그룹사운드, 칼라바, 스포



술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청소년 및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저희 술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청소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출산꾸러미' 선물

아기와 첫 만남 기다리는 산모 100명에 전달

아이와 첫 만남을 기다리는 산모들에게 출산꾸러미를 선물하는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는 아이 낳아 함께 잘 키우는 비전을 위한 '아기와 첫 만남을 기다리는 산모' 100명에게 첫 만남 꾸러미와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이드 책자를 20일~23일 전주시 임산부 가정에 전달한다.

이번 출산꾸러미는 예비부모가 되는 임산부에게 총 8종 신생아용 손톱깎이, 오가니 턱받이, 이유식 용기, 보온병, 유모차 파우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포괄적 양육정보지 등으로 구성되어 배부하며 본 사업은 전주시의 출산율 정리를 위하여 긍정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라북도 출산율은 인구 1명당 0.983명(출처 KOSIS(통계청, 인구동향조사))으로 전주시는 이러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질 높은 보육환경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조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전주는 아이낳아 잘키우는 도시를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과 육아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전주' 만들기를 위해 아동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민주당 전주시의회 원내대표에 최용철 당선인



전주시의회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당선인이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12대 전주시의회 의원 35명 중 민주당

당 소속은 최 대표를 포함해 모두 29명이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석, 무소속이 4석이다.

신임 최 대표는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을 거쳐 지난 6·1지방선거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최용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해주시는 시민과 도민의 차가워진 민심의 변화를 느낀다"면서 "당헌과 당규에 입각한 활동과 선배와 후배를 연결하는 소통 역할을 통해 의회에서 하나 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공감 한 스푼! 자존감 쑥쑥! 부모교육특강

전주시립 삼천도서관, 7월 7일 안정희 마음맞춤연구소장 초청 진행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 안정희 마음맞춤연구소장을 초청해 '공감 한 스푼! 자존감 쑥쑥!'을 주제로 부모교육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전주시가 펼치는 독서 진흥 운동이자 사회적 육아 지원 운동인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삼천도서관은 이날 부모교육 전문가인 안정희 소장에게 함께 △부모와 아이의 본질적인 사랑 회복법 △아이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 소장은 △자존감 왜 중요할까? △자존감에 대한 오해 △자존감 바로 알기 △부모가 놓치기 쉬운 아이 감정 공식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공감적 경청 4단계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김윤상 기자

안정희 소장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부모교육 전문 강사이자 마음맞춤연구소 소장으로서 2000여 회 이상의 강연과 5년간의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그동안 수만 명의 부모를 만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준 부모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진짜 아이한테 이렇게 했더라면', '사춘기 자존감 수업' 등이 있다.

특강에는 육아에 관심이 있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을 통해 선착순 4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천도서관(063-281-6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미경 전주시 책의도시운영과장은 "이번 부모교육특강이 부모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